

다윗의 인격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¹⁾

김선종*

1. 서론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신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이고, 동시에 살생을 즐기는 살해하는 인간(Homo Necans)²⁾이다. 즉, 천사와 괴수가 사람 안에 더불어 산다. 이러한 인간의 양면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위대한 신앙인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몸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며 탄식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개역개정, 롬 7:22-24).

이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절규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아의

*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 1) 이 글은 2012년 9월 25일 부산장신대학교의 레반트 연구소(소장: 민경진 박사)에서 주최한 제2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하여 보완한 것이다. 귀한 논찬으로 부족한 내용을 보완해 주신 김윤희, 최중화 박사님께 감사한다.
- 2) W. Burkert, *Homo Necans: the Anthropology of Ancient Greek Sacrificial Ritual and Myth* (Berkeley-Los Angeles-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이 책에 대한 우리말 정보를 위해서는 왕대일, “유대 신앙과 헬라 문화, 그 만남과 갈등: 희생 제물의 경우,” 『Canon&Culture』 3 (2009), 67-95를 참조하라.

괴리와 분열을 깊이 고민하며 사는 사람은 참된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 성찰하는 사람이고, 잘못된 자아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인간이 선과 악 사이를 오가는 이중성이나 다중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면, 그러한 다면성을 개발하고 자아와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래 이중성과 다중성은 가치중립적이다. 이들이 통합된 자아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경우 해리성정체장애(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DID)를 일으키기도 하지만,³⁾ 반대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긍정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다중성의 빛과 그림자를 보이고 있는 대표 인물, 다윗의 인격과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할 것이다.⁴⁾ 이러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중지능 이론⁵⁾과 성격 연구 모델,⁶⁾ 인간 행동에 대한 동기 이론-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⁷⁾를 방법론으로

3) 이에 대한 연구사를 위해서는 참조, H. G. Pope Jr., et al., "Tracking Scientific Interest in the Dissociative Disorders: A Study of Scientific Publication Output 1984-2003,"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75 (2006), 19-24.

4) 심리학의 기원과 여러 갈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위해서는 마이클 베르 타이머, 『심리학사』, 오세철, 양창삼 역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9)을, 심리학적 성서 해석을 위한 개론적 지식을 위해서는 G. Aichele, et al. eds., *The Postmodern Bible: the Bible and Culture Collectiv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5), 187-224; D. A. Kille, *Psychological Biblical Criticism*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J. H. Ellens and W. G. Rollins, eds., *Psychology and the Bible: A New Way to Read the Scriptures*, 1-4 (Westport-London: Praeger, 2004); W. G. Rollins and D. A. Kille, eds., *Psychological Insight into the Bible: Texts and Readings* (Grand Rapids-Cambridge: Eerdmans, 2007); 이형원, 『구약성서 비평학 입문』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9), 383-426; 지크프리트 크로이처, "심층심리학과 주석," 지크프리트 크로이처 외, 『구약 성경 주석 방법론』, 김정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341-360을 참고하라. 이들은 주로 심층심리학적 방법을 소개하고 활용한다.

5) 하워드 가드너, 『다중지능』, 문용린, 유경재 역 (서울: 웅진씽크빅, 2012).

6) P. T. Costa, Jr., and R. R. McCra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NEO-FFI)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2).

7) 아래의 3.3을 보라.

사용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다윗과 관련된 본문의 범위를 다윗의 등극사(삼상 16장-삼하 5장)⁸⁾에 제한할 것인데, 이는 다윗이 왕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보인 다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하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2. 다윗의 다중지능

오늘날 독자들은 주전 11세기⁹⁾ 인물인 다윗의 인격을 분석하기 위해 현대의 심리학 이론을 사용하는 것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영감으로 기록된 성서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반감은 사실 심리학의 어원이 ‘영혼’, ‘정신’을 뜻하는 ‘프쉬케’(ψυχή)에서 온 것을 생각하면 그리 바람직한 반응은 아니다.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빌헬름 분트(W. Wundt)가 1879년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실험실을 창설하기 이전에, 이미 독일의 성서학자 프란츠 델리취(F. Delitzsch)가 1855년에 『성서 심리학의 체계』라는 책을 저술한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¹⁰⁾ 따라서 심리학적 성서 해석이 단지 낯설다는 이유로 성경을 해석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¹¹⁾ 성서 주석가는 새롭게 산출되는 방법론을 무비판적

8)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학자는 L. Rost, *Die Überlieferung von der Thronnachfolge Davids*, BWANT 3/6 (Stuttgart: W. Kohlhammer, 1926)이다.

9) K. A. Kitchen, *On the Reliabilit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Cambridge: Eerdmans, 2006), 83; D. M. Howard, Jr., “David,” ABD II, 41은 다윗의 통치 연대를 주전 1010-970년으로 잡는다.

10) F. Delitzsch, *System der biblischen Psychologie* (Leipzig: Dörffling & Franke, 1855).

11) G. Theissen, *Psychological aspects of Pauline theology*, J. P. Galvin, trans. (Edinburgh: T&T Clark, 1987), 1은 이러한 주석가들의 입장을 비판한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심리학적 해석을 따른 연구는 다른 연구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참조, 박종수, “성서적 치유와 목회 상담: 영의 분석심리학 입장에서 본 요나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4 (2002), 7-12; 박종수, “분석심리학 관점에서 본 하갈이야기(창

으로 도입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방법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서도 안 된다.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연구실과 실험실을 벗어나 일반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통속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¹²⁾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성육신하여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이상, 끊임없이 오늘의 새로운 언어, 새로운 방법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성서 주석을 통한 메시지가 삶의 구체적인 현장을 살아가는 독자들의 심리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도 심리학적 성서 해석의 필요성을 정당화한다.

2.1. 가드너의 이론에 비추어 본 다윗

미국의 심리학자 가드너는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s)이라는 이론을 1983년에 제안한다. 1912년 독일 심리학자 슈테른(W. Stern)이 사람의 능력을 주로 지적인 측면에서 지능 지수(IQ: Intelligence Quotient)라는 이름으로 단면적으로 평가해 왔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람의 능력을 여러 차원에서 바라보려는 시도에서 비롯한다. 가드너는 인간의 지능을 음악, 신체운동, 논리수학, 언어, 공간, 인간 친화, 자기성찰의 측면에서 측정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여기에 영성 지능이나 실존 지능도 고려할 만한 것으로 언급한다.¹³⁾ 가드너가 지능을 문제를

16:1-14), 「구약논단」 16 (2004), 7-33; 박종수, “삼손설화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3 (2007), 29-55; 이관직, 『성경인물과 심리분석』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오우성, 『성서와 심리학의 대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2) 허태균, 『가끔은 제정신: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산다』 (서울: 쌤앤파커스, 2012); 김정운, 『남자의 물건: 김정운이 제안하는 존재학인의 문화심리학』 (서울: 21세기 북스, 2012) 등.

13) 하워드 가드너, 『다중지능』, 27-42. 영성 지능(SQ: Spiritual Intelligence Quotient)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는 점에서,¹⁴⁾ 다중지능은 다른 말로 다중의 능력, 여러 차원에서의 능력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다윗을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다중의 지능 혹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탁월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사무엘상 16-17장은 애초부터 다윗을 목자, 음악 치료사, 전사로 등장시킨다.¹⁵⁾ 다윗은 사울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음악 치료사(삼상 16:14-23)로서 악기도 제조한 것으로 기술되며(대하 29:26; 느 12:36; 암 6:5), 왕위에 오른 후 레위 계통의 성전 음악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그의 면모(대상 25장)는 가느너의 용어를 따르면, 음악 지능과 능력을 드러낸다. 양과 사람을 치는 목자로서(삼상 16:1-13; 삼하 5:2-10), 또 요나단과 생명을 나누는 우정을 쌓은 다윗(삼상 18:1-5)은 공간 능력과 인간 친화 능력을 갖추었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다윗의 곁에는 언제나 그를 따르고 사랑하며 지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그의 인간 친화 능력을 뒷받침한다(삼상 18:6-29; 19-22 등).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을 시작(삼상 17장)으로, 그 후 계속된 전투에서 전공을 거둔 모습(삼상 27:8-12; 30:6-10; 삼하 8장; 10장 등)은 그의 신체 운동 능력이 남달랐을 것임을 전제한다.¹⁶⁾ 수많은 시편의 저자 혹은 헌정을 받은 사람¹⁷⁾으로서의 다윗은 그의 언어 능력이 탁월했던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밧세바와 잠자리를 함께 한 후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다윗(시 51편)은 분명히 자기성찰의 능력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참조, 김난예, “영성지능 측정 가능성 탐색,”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0 (2012), 335-360.

14) 하워드 가드너, 『다중지능』, 25.

15) W.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119.

16) 사령관, 군 지휘관으로서의 다윗이 배태한 전투적 메시아니즘 사상에 대해서는 엄원식, “다윗의 전기(傳記)에 대한 분석적 비판: 전투적 메시아니즘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9 (2000), 109-135를 참조하라.

17) 시편의 저자 문제를 위해서는 P. C. Craigie, *Psalms 1-50, WBC 19* (Waco: Word Books, 1983), 33-35를 참조하라.

이러한 다윗의 면모는 가드너가 다중지능 이론을 통해 의도하는 바를 훨씬 뛰어넘는데, 다중지능은 모든 면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단지 지적인 영역의 능력에만 주안점을 두는 입장에서 벗어나 개인차를 인정하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¹⁸⁾ 이러한 점에서 다윗은 단지 지적인 능력 외에 하나의 특정 분야에서만 능력을 보인 것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여러 분야에서 사람이 한꺼번에 발휘할 수 없는 특출한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성경은 증언한다. 따라서 다중 인격의 심리학의 차원에서 볼 때, 이처럼 다윗이 보여주는 인격은 현실적이지 않다.

2.2. 편집비평가와 최소주의자가 바라보는 다윗

그러나 과연 이처럼 성경이 묘사하는 이상적인 다윗과 실제의 역사적 다윗이 동일한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¹⁹⁾ 다윗의 면모를 성경에 기술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일부 학자들에게 르네상스 이전, 비평학 이전의 시기로 돌아가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성경 읽기 방식으로 매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무엘상 16-17장에 나타난 목자로서의 다윗, 음악 치료사로서의 다윗, 전사로서의 다윗은 신명기 역사가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판단할 때, 정치인, 신앙인, 군대 지휘관으로서 다윗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기 위한 편집자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²⁰⁾

18) 하워드 가드너, 『다중지능』, 5.

19) 비교적 온건한 이스라엘 역사학인 J. M. Miller and J. H. Hayes,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6), 149-188도 역사적 다윗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는 데에 회의적이다.

20) W.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119-134. 매우 철저한 편집비평을 따른 분석을 위해서는 참조, J. Vermeylen, *La loi du plus fort: Histoire de la rédaction*

이와 같은 편집비평가들은 사실상 본문이 형성되고 발전한 역사를 추구하여 본문 안에 있는 여러 층과 저자들의 흔적을 추적하지, 다윗의 실존과 삶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역사와 신학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편집비평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다윗이 위에서와 같이 다중지능, 여러 방면에서의 능력을 가진 자로 평가되는 것은 성경의 최종 본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하다. 이것은 또한 심리학적 해석 방법이 성경에 대하여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이다.

이처럼 편집비평가들이 다윗의 실존 자체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최소주의(minimalism)의 입장을 지니고 있는 역사가들에게 다윗의 다중지능을 논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무의미한 작업이다. 극단적인 최소주의자의 대표자들인 톰슨(T. Thomson), 렘키(N. P. Lemche), 데이비스(P. Davies)는 고고학과 문헌학의 입장에서 다윗은 실존하지 않은 인물로서 후대 이스라엘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투영된 이상적인 왕이라고 주장한다.²¹⁾ 이들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다윗은 후대에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인물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상적인 인물로서 가공된 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은 가드너가 제안하는 다중지능의 여러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des récits davidiques de 1 Samuel 8 à 1 Rois 2, BETL 154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0), 81-101.

- 21)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I. Finkelstein and N. A. Silberman, *La Bible dévoilée*, P. Ghirardi, traduit. (Paris: Gallimard, 2001), 201. 우리말 번역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핑켈스타인, 닐 에셔 실버먼 공저, 『성경 : 고고학인가 전설인가』, 오성환 역 (서울: 까치, 2002)을 참조하라. 이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W. M. Schniedewind, *How the Bible Became a Book: The Textualization of Ancient Israel* (New York-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를 참조하라.

2.3. 딜레마

심리학적 성서 해석 방법은 본문이 변천한 과정, 본문이 생성하고 다른 본문과 결합되어 최종 본문을 이룬 역사의 추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성경의 최종 본문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따라서 본문을 최종적으로 책임진 저자가 이야기를 전개하고 등장인물을 묘사하는 심리 상황과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위를 그린 심리 상태를 분석한다.²²⁾ 이러한 면에서 심리학적 성서 해석 방법은 성경 본문이 묘사하는 인물의 자아를 하나의 단일체로 받아들이고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다윗의 경우, 그는 많은 면에서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심리학적 접근은 다윗을 모델로 하여 다윗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다중성, 혹은 이러한 다중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문 자체에 관심을 가질 때 그 본문을 산출한 삶의 자리(Sitz im Leben)를 추적한다면, 단일한 인물에 관심을 가질 때 독자들은 그 인물이 후대의 독자들에게 산출한 삶의 이후(Nachleben)에 끼친 영향도 고려할 수 있다.²³⁾

다른 한편, 본문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 주석가들은 하나의 본문 안에 여러 저자나 편집자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들이 탄생시킨 등장인물은 하나의 인물에 대한 여러 전승이 모여 결합된 인물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독자들이 성경 이야기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역사적 실체를 요구하는 것은 순진한 성경 읽기 방식에 해당한다. 이는 예수님이 신약의 네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습이 서로 상치할 때, 과연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이 진정한 역사적 예수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과 같다. 이러한 때 본문이 형성되고 발달한 역사와 성경 인물에 대한 고고학적 허구성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 성경의 최종 본문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에 대해 기술하는 데에서 건강

22) D. A. Kille, *Psychological Biblical Criticism*, 10.

23) *Ibid.*, 27.

한 신앙의 가르침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등장인물에 대한 일종의 회의주의를 벗어나기 힘들다.

심리학적 성서 해석은 본문의 최종 형태를 전제로 하고, 편집비평 등의 역사비평은 본문의 형성 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점에서 동일한 연구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심리학적 주석은 역사비평 연구의 결과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프라처(W. Pratscher)의 주장은 역사비평을 우위에 둔 전제에서 가한 심리학적 해석 방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²⁴⁾ 물론 역사비평 방법은 저자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 본문을 산출한 역사의 배경 아래 추구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러할 경우 등장인물과 저자에 대한 분열된 자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따르면 다윗도 오랜 시간을 통해 여러 전승이 결합된 인물이다.²⁵⁾ 그렇다고 하여 본문의 최종 형태만을 인정하여 인물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할 경우, 이상화된 허상의 인격을 분석하는 허망함을 가져올 수도 있다. 여기에 두 방법이 쉽게 공존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성경에 대한 역사, 언어, 신학의 입장을 총괄하여 성경을 해석할 수 없고, 단지 하나의 특정한 렌즈를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성경 해석자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와 인식의 한계이다.

3. 다윗의 양면성의 빛과 그림자

이러한 심리학적 해석 방식과 역사비평 방식의 딜레마를 인정하더

24) 지크프리트 크로이처, “심층심리학과 주석,” 353.

25) S. Bar-Efrat, “From History to Story: The Development of the Figure of David in Biblical and Post-Biblical Literature,” A. G. Auld and E. Eynikel, eds., *For and Against David: Story and History in the Books of Samuel*, BETL 232 (Leuven-Paris-Walpole, Peeters, 2010), 47-56.

라도 다윗은 최소주의 역사학자들이 추론하듯이 단순히 이스라엘 국가와 종교의 이데올로기가 투영된 이상화된 가공된 인물로 치부할 수 없다.²⁶⁾ 만일 다윗이 이상화된 인물에 불과하다면, 그의 배후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이해하기 힘든 점에서 그러하다.²⁷⁾ 만일 후대의 저자가 이상적인 왕 다윗을 가상으로 그렸다면, 왜 굳이 그를 다중 인격을 소유한, 다면적인 인간으로 묘사했겠는가? 따라서 비록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다윗의 인물을 최종 본문에 따라 하나의 단일체로 여기고 분석하는 과정은 다윗의 인격뿐 아니라 본문의 형성 과정에 대한 귀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3.1. 예비적인 문제: 다중 인격과 특질 이론

자아의 통일성에 대한 질문은 희랍의 고전 철학자들로부터 오늘날 심리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주전 6세기의 헤라클레이토스(Heraclitus)는 사람이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고 비유함으로써, 자아를 포함한 만물이 변화함을 주장한다.²⁸⁾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18세기의 영국 경험론자 데이비드 흄(D. Hume)은 지속적인 실체 개념으로서의 자아의 동일성에 대한 환영을 깨뜨린다.²⁹⁾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1990년 영국의 심리 치료사 존 로언(J. Rowan)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다중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넷에서 아홉 개 정도의 ‘하위 인격’(subpersonalities)이 있다고 주장

26) L. L. Grabbe, *Ancient Israel: What Do We Know and How Do We Know It?* (London-New York: T & T Clark, 2007), 111-122.

27) 역대기는 사무엘상하에 기술된 다윗의 어두운 면을 자신의 역사에서 삭제하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신앙의 면모를 첨가한다. 참조, 최종진, “역대기 저자의 신학,” 『구약논단』 14 (2008), 138-158.

28) 요한네스 힐쉬베르거, 『서양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 강성위 역 (서울: 이문출판사, 1983), 64-67.

29) 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67).

한다.³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다중의 인격 (multiple personalities) 때문에 고민하며, 하나의 주된 인격이 나머지 인격을 억압한다. 그러나 리타 카터(R. Carter)를 따르면, 통합된 단일한 인격이 다중 인격보다 반드시 더 좋은 것은 아닌데, 다중성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려는 반응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³¹⁾ 또한 인격의 통일성만을 기대하고 고집할 때, 인간의 일탈 행동을 설명하기 힘들다.

리타 카터는 어떠한 개인이 자신에게 특정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개방성, 외향성, 안정성, 우호성, 성실성, 보수성, 내향성, 불안함, 비우호성, 부주의함 등 여덟 가지 항목에서 일반적으로 다르게 반응함에 주목한다.³²⁾ 그래서 가정에서는 매우 다정한 아버지가 직장에서는 매우 권위적일 수 있으며, 남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는 억제된 하위 인격들을 해방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 이는 흔히 말하듯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사회인으로서의 모습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서론에서 예로 든 바울은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고 고뇌하는데,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다윗의 인격의 특징을 보이며, 이는 그가 가지고 있는 다중지능, 다중의 능력과는 다른 차원을 갖는다. 반면 최근의 성격 심리학자들은 이전에 3-16개로 추정하던 사람의 특질(trait)을 오늘날 Big 5로 부르는 5개의 특질, 즉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신경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으로 압축한다. 이들은 이러한 특질들이 버무려져 하나의 통합된 성격이 발현되는 것이지, 인격 자체가 수시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³³⁾ 이러한 특질 이론에 따라 어느 한 인물의

30) J. Rowan, *Subpersonalities: The People Inside Us* (London: Brunner-Routledge, 1990); 리타 카터, 『다중 인격의 심리학』, 김명남 역 (서울: 교양인, 2011), 55에서 재인용.

31) 리타 카터, 『다중 인격의 심리학』, 131, 177.

32) *Ibid.*, 186-197. 리타 카터는 전문 심리학자라기보다 저널리스트로서, 그의 저서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심리 교양서 가운데 하나이다. 김윤희 박사는 리타 카터의 주장처럼 상황마다 서로 다른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리타 카터가 말하는 성격의 다중성을 행동의 비일관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33) 각주 6 참조.

성격을 분석할 때, 위의 5개 특질의 수치가 높고 낮을 때, 다윗을 비롯한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설명할 수 있다.

물론 리타 카터의 다중 인격 이론이나 특질 이론은 측정자 자신이 자신을 대상화하고 객관화하여 내면을 관찰하는 자기보고식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 이론을 성경 저자의 의도에 따라 기술하고 있는 다윗에게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정작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저자나 편집자가 다윗을 기술한 방향과 성경이 기술한 다윗의 면모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다윗의 양면성은 다윗의 다중지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친다윗적인 자료와 다윗에 반대하는 자료가 사무엘서의 편집 과정에서 한 군데 모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³⁴⁾ 본 논문은 방법론적으로 다윗이 통일된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접근한다.³⁵⁾

3.2. 다윗의 여러 모습

3.2.1. 성범죄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성경이 평가하는 다윗에 익숙한 독자들이 사무엘서에 기록된 그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의 모습에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삼상 13:14), 억제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성을 탐닉하는

34) 각주 19에서 이미 소개한 A. G. Auld and E. Eynikel, eds., *For and Against David: Story and History in the Books of Samuel*, BETL 232 (Leuven-Paris-Walpole: Peeters, 2010)의 제목은 이러한 입장을 잘 대변한다.

35) 최근 김희권, “통일군주 다윗의 남북화해와 통일정치,” 『구약논단』 47 (2013), 95-132도 공식적 입장에서 다윗의 통합적 인격을 바탕으로 다윗의 정치를 분석한다.

파렴치한이기도 하다. 밋세바와 간통한 대표적인 예를 비롯하여, 그의 여성 편력은 다윗의 아내들의 목록이 반영한다(삼하 3:2-5). 나발의 아내 아버가일도 결국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삼상 25장). 그래서 혹자는 “다윗은 위대한 성군(聖君)인가, 간악한 성군(性君)인가?(삼상 17:50-51; 삼하 21:19; 대상 20:5)”라고 묻기도 한다.³⁶⁾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지해야 하는 거룩함에 대한 요구는 남녀 사이의 은밀한 성생활과 관련된 규정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을 명하는 성결 법전(레 17-26) 안에서 레위기 18장과 20장은 부도덕한 성관계를 금지함으로써, 성생활에서조차 거룩함을 상실하지 말 것을 명한다.³⁷⁾ 또한 유대 랍비들은 아가서를 성경의 지성소로 부르는데(*mYad* 3, 5), 그것은 남녀의 은밀한 성의 문제에서조차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거룩함을 바르게 유지할 것은 틀림없을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³⁸⁾ 이러한 측면에서 다윗은 성경이 일상생활에서 요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동시에 가장 지키기 힘든 욕구와 관련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다. 비록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상승부에서 하강부의 전환점이 된 밋세바와 간통 사건 이후, 나단의 책망 앞에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삼하 11:1-12:25)하고 참회시(시 51장)를 지어 역동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그의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측면에 비해 성 윤리의 측면에서는 민감하지 못했던 그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낸다.

36) 고영민, “성경난제 해설 154-다윗은 위대한 성군(聖君)인가, 간악한 성군(性君)인가?(삼상 17:50-51, 삼하 21:19, 대상 20:5),” 『월간목회』 414 (2011), 148-153.

37) 레위기 18장과 20장은 거룩한 삶을 위한 법을 규정하는 레위기 19장을 감싸고 있다.

38) 참조, C. Uehlinger, “Cantique des cantiques,” T. Römer, J.-D. Macchi, and C. Nihan, eds., *Introduction à l'Ancien Testament, Le monde de la Bible* 49 (Genève: Labor et Fides, 2009), 630.

3.2.2. 거룩한 신앙인

다윗에게는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단지 과거의 인물로 여기지 않는다. 다윗은 당대를 통치하는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일 정도로(왕상 15:3, 11; 왕하 14:3; 16:2; 18:3; 22:2; 대하 17:3; 28:1; 29:2) 이상적인 왕이며, 백성들이 기다리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도 하다(마 1:1; 행 13:23 등). 그는 풍부한 감수성과 신앙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지은 시인이고 기도자이며(삼하 7:18-29),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삼하 2:1 등). 그의 인생의 상승부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들여오는 데에서 절정에 다다르는데(삼하 6장),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는 영원한 왕조를 약속받고(삼하 7:1-17),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즉위시의 주인공이 된다(삼하 7:14; 참조, 시 2:7).

하나님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한 다윗에게 밋세바 사건과 많은 아내는 걸림돌이었다. 이러한 걸림돌도 이상적인 신앙인 다윗을 옹호하기 위해 제거되는데, 쿰란의 다메섹 문서는 다윗이 여러 아내를 금지하는 율법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한다(CD V 1-6). 그리하여 우리야와 밋세바에 대한 죄악도 하나님께 용서받는다.³⁹⁾ 이처럼 다윗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어두운 그림자는 애써 외면되고, 그의 밝은 면만 부각된다.

3.2.3. 정치인

이러한 다윗의 다중성은 여성 문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 교활한 면모와 뛰어난 정치력을 보임으로 간파된다. 그는 자신의 장인이자 정적,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 앞에서는 인간이 보이기 힘든 관용을 보인다.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은 단지 사울의 걸옷자락만 베고(삼상

39) 송창현, “쿰란 사본과 다윗 전승,” 『Canon&Culture』 2 (2008), 127-128.

24:11), 십 광야에서 또다시 다윗은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므로(삼상 26:12) 자신의 관대함을 보인다.⁴⁰⁾ 물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성경은 기름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중(삼상 26:11, 16, 23)에서 비롯한 것으로 명시하지만, 이는 정권을 탈환하기 위한 정치인으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면모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사울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다윗이 치밀하게 사울의 가신을 자신의 세력으로 편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다윗은 사울의 박해로 오랜 세월 동안 타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지만, 자신의 정적을 보호하고 용서하며, 정적이 죽었을 때 긴 조가를 부름으로 탄식한다(삼하 1:17-27).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관용은 다른 얼굴로 돌변하여 나타나는데,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아말렉 사람을 한순간의 고민 없이 살해한다(삼하 1:15).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 자신의 정적 아브넬을 제거한 충신 요압의 피흘림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삼하 3:28-29).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며 조가를 부르는데(삼하 3:33-34), 이러한 자신의 정적에 대한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면모는 자신의 충신 우리야를 살인한 다윗의 잔인함과 쉽게 조화되지 않는다.⁴¹⁾ 당시 요압은 다윗과 함께 우리야를 죽인 공모자로서 살인의 현장에 머물러 있다(삼하 11:16-17). 다윗은 자신의 또 다른 자아 요압을 스스로 거부하는 분열적인 모습을 보인다.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에게서 용병으로 일할 때에도 매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데(삼상 27; 28:1-2; 29:1-11), 그는 아기스의 보호를 받으며 앞으로 자신이 다스릴 유다의 영토를 굳건히 하는 작업을 한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숨기며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전문 정치가

40) R. W. Klein, *1 Samuel*, WBC 10 (Waco: Word Books, 1983), 236-238은 이러한 두 이야기가 같은 사건에 대한 변형이라고 주장한다.

41) 김희권, “통일군주 다윗의 남북화해와 통일정치,” 97-98은 다윗의 정치력을 조가 정치, 보훈 정치, 민심 호소 정치로 표현한다.

이다.

3.2.4. 냉담한 남편

다윗은 처음 사울의 궁정에 들어갔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에게 사랑을 받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시도할 때 그들의 보호를 받는다(삼상 19:11-17). 다윗이 자신에게 왕위를 양보한 요나단(삼상 18-20)에게 끝까지 우정을 유지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의 생명을 구하는 반면(삼하 9:1-13), 법케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자신을 비웃는 미갈에 대해서는 과거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아내와의 관계를 순간적으로 끊는 냉정함을 보인다(삼하 6:16, 20-23).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 사울의 부하인 아브넬과 계약을 맺을 때, 아브넬에 대한 요구 조건에 대하여 미갈을 자신에게 데리고 올 것을 요구한다(삼하 3:13). 이러한 다윗의 행위는 자신의 이전 아내 미갈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죽은 사울의 잔당들의 세력들을 미약하게 하고, 즉위 당시 실세를 형성하고 있던 사울의 사람들을 자신에게 편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⁴²⁾

3.3. 다윗의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독자들은 이러한 다윗의 다면적인 모습에 혼란스럽다. 누가 진정한 다윗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신앙인 다윗인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이성을 얻기 위해 부하마저도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자 다윗인가? 또한 독자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다양한 행동을 하도록

42) 이 외에 자신을 모반한 아들, 압살롬(삼하 13-18장)과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것도 본 논의의 흐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를 움직인 동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어느 것이 다윗의 참된 동기였는가? 자신의 모든 행동의 근거를 하나님께 돌린 신앙의 동기였는가, 아니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여러 가면을 쓰고 목적을 달성한 세속의 동기였는가?

심리학자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동기를, 표면적 동기인 외재적 동기/외현적 동기(*explicit motive*)와 실제 동기인 내재적 동기/암묵적 동기(*implicit motive*)로 나눈다.⁴³⁾ 프로이트(Freud)의 무의식, 융(Jung)의 외적 인격(페르소나)과 내적 인격(아니마와 아니무스), 벡(Beck)과 영(Young)의 스키마(Schema)가 이러한 인간 외면과 내면의 이중 동기를 설명한다.⁴⁴⁾ 외재적 동기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과 행동의 원인을 보이게 하는 표면적 동기라면, 내재적 동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욕구와 욕망에 해당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윗의 여러 행위를 분석해 보면, 어쩌면 다윗으로 하여금 여러 모습-신앙인, 파렴치범, 관용의 사람, 잔인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 등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다면적인 모습을 견디도록 한 실제 동기, 즉 자신 안에 숨어 있는 내재적 동기는 권력을 장악하는 야망에 있었을 것이다. 다윗은 결국 왕이 되기 위하여, 사울에게 받은 박해를 이겨내야 했고, 자신을 조롱한 미갈도 다시 불러들여야 했으며,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미친 척도 기꺼이 할 수 있었다(삼상 21:10-15). 그가 자신의 삶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종 목적은 왕권에 있었기

43) 윤가현 외, 『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10), 239-242.

44) 지그문트 프로이트, 『무의식에 관하여』, 윤희기 역 (서울: 열린책들, 1998); C. 칼 구르타프 융, 『원형과 무의식』,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서울: 숲, 2003); 김성민, 『융의 심리학과 종교』 (서울: 동명사, 1998), 115-123; 웨인 G. 롤린스, 『융과 성서』, 이봉우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2), 170-172; 김재성, “카를 융의 심리학적 성서 해석,” 『신학사상』 154 (2011), 95-141; A. T. Beck,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2); J. E. Young, J. S. Klosko, and M. E. Weishaar,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Guilford Press, 2003).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외적으로 하는 표면적인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이다. 사울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도 단지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자라는 딱지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삼상 26:9).

어느 것이 다윗의 진짜 동기였는가? 동기 이론을 따르면, 사람이 표현하는 외재적 동기와 내면 안의 욕구를 구성하는 내재적 동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없고 단지 그의 말을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 독자들은 그의 진정한 동기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처럼 신앙으로 채색된 다윗의 외재적 동기가 거짓이라고 쉽게 폄하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다윗의 외면적 동기, 즉 신앙과 영적인 동기는 어쩌면 그의 내적 욕망과 욕구를 이겨내게 하는 실제적인 힘을 제공했을 것이다. ‘하나님과 악마 사이에서’,⁴⁵⁾ 다윗은 신앙인으로서 천사와 같은 고결한 모습도 보이지만, 때로는 악마와 같은 파렴치범의 모습도 보인다. 이러한 이중의 다윗, 다면적인 다윗 자체가 하나의 다윗을 구성하는 다윗의 참된 인격체이다.

4. 결론

다윗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다면적이다. 다중의 능력을 지닌 다중지능의 소유자인 동시에, 그의 인격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여러 모습을 보인다. 다윗은 신앙과 욕정을 동시에 안고 사는 복합 인물로, 그의 행동에 이러한 복잡다단한 그의 내면이 표출된다.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는데 기여하며, 심리학적 성서 해석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심리와 행동과 인격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많은 경우 성경의 저자나 화자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의 심리

45) 이 표현은 헤이코 A. 오버만, 『루터: 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인간』, 이양호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5)에서 빌렸다.

상태와 행동의 동기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심리 분석은 독자들의 몫이다. 이처럼 이야기의 간격을 독자가 스스로 메워야 하는 점에서 심리학적 성서 해석은 이야기 비평 또는 독자반응비평과 그 맥을 함께 한다. 물론 성경의 최종 본문이 묘사하는 다윗이 과연 역사적 다윗인가에 대해 물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윗의 다중성에 대한 논의가 튼튼한 역사성을 결여한 허무한 논의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처럼 다중적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누스와 같이 이중적이고 다면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위로받으며, 이러한 하나의 인격체 안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인격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한다면, 이러한 심리학적 성서 해석은 하나의 성서 해석을 넘어 삶과 인격의 도야를 위한 실천적인 해석 방법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의 내재적 동기는 왕권을 향한 욕망과 욕구로 점철되어 있다. 이를 위해 부끄러운 짓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외재적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러한 이중 동기로 말미암아 다윗은 다면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더러운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의 외재적 동기는 단지 그의 가증스런 거짓이 아니라 결국 참된 동기가 되어, 다윗의 내재적 동기는 외재적 동기에 통합된다. 다윗의 거룩한 열정이 헛된 욕망을 흡수하고, 하나님의 빛은 다윗의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간다.

낮에는 해가 너를 비출 필요가 없고 밤에는 달이 너를 비출 필요가 없으리라. 야훼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하느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고 너의 달이 다시는 스러지지 아니하리라. 야훼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리니 다시는 곡하는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공동, 사 60:19-20).

<주제어>

다윗, 인격, 심리학적 해석, 다중지능,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Key Words>

David, Personality,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Multiple Intelligences, Implicit Motivation, Explicit Motivation

* 접수일 2013년 7월 23일, 수정일 2013년 9월 7일, 게재 확정일 2013년 9월 7일

참고문헌

- 고영민, “성경난제 해설 154-다윗은 위대한 성군(聖君)인가, 간악한 성군(性君)인가?(삼상 17:50-51, 삼하 21:19, 대상 20:5),” 「월간목회」 414 (2011), 148-153.
- 김난예, “영성지능 측정 가능성 탐색,”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0 (2012), 335-360.
- 김성민, 『융의 심리학과 종교』, 서울: 동명사, 1998.
- 김재성, “카를 융의 심리학적 성서 해석,” 「신학사상」 154 (2011), 95-141.
- 김정운, 『남자의 물건: 김정운이 제안하는 존재확인의 문화심리학』, 서울: 21세기북스, 2012.
- 김희권, “통일군주 다윗의 남북화해와 통일정치,” 「구약논단」 47 (2013), 95-132.
- 리타 카터, 『다중 인격의 심리학』, 김명남 역, 서울: 교양인, 2011.
- 마이클 베르 타이머, 『심리학사』, 오세철, 양창삼 역,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9.
- 박종수, “성서적 치유와 목회 상담: 융의 분석심리학 입장에서 본 요나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4 (2002), 7-25.
- 박종수, “분석심리학 관점에서 본 하갈이야기(창 16:1-14),” 「구약논단」 16 (2004), 7-33.
- 박종수, “삼손설화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3 (2007), 29-55.
- 송창현, “쿰란 사본과 다윗 전승,” 「Canon&Culture」 2 (2008), 121-148.
- 엄원식, “다윗의 전기(傳記)에 대한 분석적 비판: 전투적 메시아니즘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9 (2000), 109-135.
- 오우성, 『성서와 심리학의 대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왕대일, “유대 신앙과 헬라 문화, 그 만남과 갈등: 희생 제물의 경우,” 「Canon & Culture」 3 (2009), 67-95.
- 요한네스 힐쉬베르거, 『서양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 강성위 역, 서울: 이문출판사, 1983.
- 웨인 G. 로런스, 『융과 성서』, 이봉우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2.

- 윤가현 외, 『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10.
- 이관직, 『성경인물과 심리분석』,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 이형원, 『구약성서 비평학 입문』,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9.
- 지그문트 프로이트, 『무의식에 관하여』, 윤희기 역, 서울: 열린책들, 1998.
- 지크프리트 크로이처, “심층심리학과 주석,” 지크프리트 크로이처 외, 『구약 성경 주석 방법론』, 김정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341-360.
- 최종진, “역대기 저자의 신학,” 『구약논단』 14 (2008), 138-158.
- 갈 구르타프 융, 『원형과 무의식』,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서울: 숲, 2003.
- 하워드 가드너, 『다중지능』, 문용린, 유경재 역, 서울: 웅진씽크빅, 2012.
- 허태균, 『가끔은 제정신: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산다』, 서울: 쌤앤파커스, 2012.
- 헤이코 A. 오버만, 『루터: 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인간』, 이양호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5.
- Aichele G., et al., eds., *The Postmodern Bible: the Bible and Culture Collectiv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5.
- Bar-Efrat, S., “From History to Story: The Development of the Figure of David in Biblical and Post-Biblical Literature,” A. G. Auld and E. Eynikel, eds., *For and Against David: Story and History in the Books of Samuel*, BETL 232, Leuven- Paris-Walpole: Peeters, 2010, 47-56.
- Beck, A. T.,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2.
- Brueggemann, W., *First and Second Samuel*,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 Burkert, W., *Homo Necans: the Anthropology of Ancient Greek Sacrificial Ritual and Myth*, Berkeley-Los Angeles-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 Costa, P. T., Jr., and McCrae, R. R.,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NEO-FFI) Manual*,

-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2.
- Craigie, P. C., *Psalms 1-50*, WBC 19, Waco: Word Books, 1983.
- Delitzsch, F., *System der biblischen Psychologie*, Leipzig: Dörffling & Franke, 1855.
- Ellens, J. H. and Rollins, W. G., eds., *Psychology and the Bible: A New Way to Read the Scriptures*, 1-4, Westport-London: Praeger, 2004.
- Finkelstein, I. and Silberman, N. A., *La Bible dévoilée*, P. Ghirardi, trans., Paris: Gallimard, 2001.
- Grabbe, L. L., *Ancient Israel: What Do We Know and How Do We Know It?*, London -New York: T & T Clark, 2007.
- Howard, Jr. D. M., "David," ABD II, 41-49.
- Hume, D., *A Treatise of Human Nature*,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67.
- Kille, D. A., *Psychological Biblical Criticism*,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 Kitchen, K. A., *On the Reliabilit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Cambridge: Eerdmans, 2006.
- Klein, R. W., *1 Samuel*, WBC 10, Waco: Word Books, 1983.
- Miller, J. M. and Hayes, J. H.,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6.
- Pope Jr. H. G., et al., "Tracking Scientific Interest in the Dissociative Disorders: A Study of Scientific Publication Output 1984-2003,"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75 (2006), 19-24.
- Rollins, W. G. and Kille, D. A., eds., *Psychological Insight into the Bible: Texts and Readings*, Grand Rapids-Cambridge: Eerdmans, 2007.
- Rost, L., *Die Überlieferung von der Thronnachfolge Davids*, BWANT 3/6, Stuttgart: W. Kohlhammer, 1926.
- Schniedewind, W. M., *How the Bible Became a Book: The Textualization of Ancient Israel*, New York-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Theissen, G., *Psychological aspects of Pauline theology*, J. P. Galvin, trans., Edinburgh: T&T Clark, 1987.
- Uehlinger, C., "Cantique des cantiques," T. Römer, J.-D. Macchi, and C. Nihan, eds., *Introduction à l'Ancien Testament, Le monde de la Bible* 49, Genève: Labor et Fides, 2009, 619-631.

Vermeylen, J., *La loi du plus fort: Histoire de la rédaction des récits davidiques de 1 Samul 8 à 1 Rois 2*, BETL 154,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0.

Young, J. E. and Klosko, J. S. and Weishaar, M. E.,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Guilford Press, 2003.

<초록>

다윗의 인격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

김선종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성서학에서 심리학적 해석은 다른 전통적인 해석 방식에 비해 등한 시되거나 좋지 않은 해석 방식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이는 전통 신학에 비하여 심리학의 역사가 짧기 때문이기도 하고, 소위 영적 문제를 심리적으로 해석한다는 선입견에서 비롯하기도 한다. 그러나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점에서 성경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인격과 행위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글은 방법론적으로 성경의 최종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이 묘사하는 다윗의 인격을 단일체로 받아들여 그의 인격에 접근한다. 또한 심리학적 해석방법 가운데 특별히 다중 지능 이론, 특질 이론, 동기 이론에 따라 다윗의 행동과 인격을 파악하려고 시도한다.

다윗은 여러 가지 성격과 다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는 대표 인물이다. 하나님을 믿고 시로 찬미한 훌륭한 신앙인인 동시에, 부하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파렴치범이기도 하다. 자신의 아내 미갈에게는 극도로 냉담하지만, 자신의 적대자들에게는 매우 온정적이기도 하다. 이처럼 다윗의 삶과 행위에 나타나는 복잡함은 다윗의 인물 자체에서 비롯하거나, 아니면 다윗과 관련된 여러 본문이 취합되는 가운데 발생한 것일 수 있다. 다윗은 음악, 문학, 정치, 전투 등의 여러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 동시에, 일반인들조차 이해하기 힘든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다. 그의 이중 혹은 다중의 면모와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통합되는 과정을 거친다. 다윗을

비롯한 모든 인간은 그 내면에 빛과 어두움을 함께 가지고, 이들 사이에서 투쟁하고 나아가는 존재이다.

<Abstract>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of David's Personality

Prof. Sun-Jong Kim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In the field of biblical studies, psychological biblical interpretation is neglected in comparison with other traditional criticisms or considered as an inferior method. Perhaps this is because the psychological criticism has a shorter history than the traditional theology, or because one has a prejudice that so-called spiritual issues cannot be treated psychologically. In that psychology attempts to understand human behavior, however, it may help to analyse the personality and behavior of biblical characters. This article methodologically treats David's personality as a unitary one described in the final text of the Bible. Several psychological methods such as multiple intelligences, trait theory, and motivation theory are used when we analyse David's personality and behavior.

David is a representative who possesses several characters and multiple dimensions in his life. As well as he praises God in belief in Him, David is shameless in killing his servant Uriah in order to take his wife. He is apathetic to Michal, but he is sometimes very empathetic towards Saul's partisans. The complexity in David's life and behavior may derive from his personality itself, or from the history of the text on him when the

texts were collected to one body. David has an excellent talent in the spheres of music, literature, politics, and combat; he is obsessed by the desire and ambition that common people cannot understand. Finally his dual or multiple motivations are integrated within the belief in God. All human beings as well as David struggle between light and darkness that exist in their inward.